

자연·역사·인문사회 지리까지, 중동의 복합성을 읽는 지정학 길잡이

이완 W. 앤더슨 지음, 이주성 번역, 인남식 해제, 『지리학과 지정학으로 읽는 중동 사전』(메디치미디어, 2025)을 읽고

김강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교수

I. 지정학의 관점에서 본 중동의 복합성

이완 W. 앤더슨은 『지리학과 지정학으로 읽는 중동 사전』에서 ‘지정학 (geopolitics)’이라는 개념을 물리적, 역사적, 경제적, 전략적, 사회적 측면과 관련된 다양한 지리적 요소들이 정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다. 저자는 지리와 정치가 결합된 개념을 중동에 적용하며, 언뜻 보기에 동질적으로 보이는 중동의 실상에 대해 다양한 특성이 공존하는 복합적 지역으로 평가한다. 다시 말해서, 앤더슨은 중동이 문화, 종교, 언어, 기후, 사막 지형, 석유 및 수자원 등을 공유한다고 인식하기 쉽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공통성 속에서도 단일하지 않은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이 책이 다루는 지질, 기후, 토양 유형과 식물, 인종과 언어, 종교, 산업 구조 등의 주제들은 획일적으로 보이지만, 다양성이 내포된 복합적 속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중동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즉 극도의 건조함에서 비롯된 사막 기후와 이슬람이라는 단일 종교로 중동을 바라보는 시각을 문제시한다. 이는 중동 내부의 다양성을 간과한 인식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형학적으로 특정한 일반 지형이 존재하지 않듯, 기후 또한 기압, 기온, 습도 등 다양한 요소에서 획일적이지 않다. 토양과 그 위에서 자라는 식물, 동물 생태계 역시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다. 종교의 경우 현재 이슬람이 다수를 차지하나 중동은 조

로아스티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세계 4대 종교 발상지로서 다양한 종교와 종파가 공존해 왔다. 언어 면에서도 아랍어 외에도 베르베르어, 중앙아프리카어(함어족), 이란어, 쿠르드어, 튀르크어, 발루치어, 캅카스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등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된다.

더욱이, 초고층 마천루 아래에서 이어지는 유목민의 삶, 트럭에 실려 방목지로 향하는 낙타의 행렬, 컴퓨터로 제어되는 관개 시스템 옆에서도 여전히 작동하는 전통 수로 방식은 전통과 현대, 부와 빈곤이 하나의 시야 안에 공존하는 중동의 모자이크적 특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실제로 중동을 여행하다 보면 이런 장면들을 마주하게 된다. 예를 들면, 걸프 산유국들의 마천루와 정비된 도로망을 조금만 벗어나면 여전히 낙타를 몰며 살아가는 목축민의 전통적인 삶을 목도할 수 있다. 또한, 오만 남부 도파르 지역이 인도 몬순의 영향으로 안개와 박무에 둘러싸인 습윤한 기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중동은 곧 사막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한여름에 오만의 ‘자발 아크다르’(‘초록의 산’이라는 뜻)를 방문했을 때, 뜨거운 사막 기후와는 전혀 다른 서늘하고 푸르른 경관, 그리고 석류나무 같은 과실수들을 보고 중동의 다양성을 실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동물 생태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도시화, 산업화, 남획 등의 영향으로 개체 수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라비아 오릭스처럼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도 생존하는 다양한 종들이 남아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동전에는 “다비(Dhabi)”라는 동물이 등장하는데, 이는 아랍어로 가젤을 뜻한다. 아랍에미리트 수도인 “아부 다비(Abu Dhabi)”라는 명칭도 뜻의 어원은 아랍어로 “가젤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과거 아부 다비에는 많은 가젤이 서식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중동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시각으로 지정학을 제시하며 지역 전체의 공통성과 함께 다양성이 공존하는 복합적 속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앤더슨은 이 책에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할 때, 윌리엄 B. 피셔(William B. Fisher)의 고전적 저작인 『중동(The Middle East)』(1978)을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있다. 특히 피셔가 제시한 지역 구분 체계를 계승하며 리비아, 수단, 키프로스 등을 중동의 지리적 범주로 확장시켰다. 분석의 출발점이 되는 지역 범주의 설정은 분명한 기준을 필요로 한다. 저자가 지적했듯 중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구 중심적

시각이며, 객관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같은 범주 설정은 중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오늘날 중동 지역은 넓게는 아랍연맹 22개 회원국에 비아랍 국가 3개국(이스라엘, 이란, 튀르키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앤더슨이 이 책에서 설정한 중동의 범주는 자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현재 키프로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 책의 가장 아쉬운 점은 2000년에 출간된 이후 급변한 중동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지정학적 측면에서 걸프 지역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은 뚜렷한 한계로 보인다. 앤더슨은 중동의 지정학적 핵심을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포함된 ‘허브 지역’에 두고, 튀르키예, 이란, 이집트를 인접한 영향국으로 설정한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걸프 국가들은 경제력에 비해 인구와 제도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주변화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저자는 이집트를 실질적 영향력 국가로 분석하지만, 현재 이집트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중동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21세기 들어 걸프 국가들은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중동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의 분석은 소위 “걸프의 순간”으로 불리는 오늘날의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

그렇지만, 이 책은 중동의 복잡성을 일깨워주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을 지닌다. 원제는 『중동: 지리학과 지정학(Middle East: Geography and Geopolitics)』이며, 한국어판 제목은 『지리학과 지정학으로 읽는 중동 사전』으로 다소 바뀌었다. 개인적으로 한국어판 제목에 고개가 끄덕여졌던 이유는 이 책이 중동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백과사전식으로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동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은 물론 역사, 사회, 경제 등 폭넓은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며 중동의 복잡성을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 통찰을 제공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어판에 사용된 ‘중동 사전’이라는 표현은 이 책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II. 자연·역사·인문사회 지리를 아우르는 중동 지정학 길잡이

이 책은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서는 중동의 자연지리, 역사지리, 인문사회지리를 포괄하는 주요 지정학적 이슈들을 다룬다. 1장은 전체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서론」으로서 지정학의 개념을 소개하고, 중동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한다. 특히, 중동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문명의 교차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지는 2~5장은 자연지리를 중심으로 쟁점을 분석한다. 2장 「땅의 구조와 형태」는 중동의 지질학적 특성을 세밀하게 조명한다. 중동은 지층의 단층과 습곡, 지형 형성 과정이 비교적 뚜렷하게 관찰되는 지역으로 분류되며, 판 구조론적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앤더슨은 유라시아판과 아프리카판 사이에서 아라비아판, 튀르키예판, 이란판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이동해왔는지를 통해 중동 지형의 변화 과정을 추적한다. 특히 후기 중생대 이란판이 분리되고 테티스해 퇴적물이 압착되면서 이란 주변에 분지와 습곡 지형이 형성되었으며, 홍해와 아덴만의 발산 현상은 아라비아판의 북상과 튀르키예판 및 에게해판의 서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이로 인해 변환단층과 섭입대(攝入帶)가 공존하는 복합 지질 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특징은 중동을 하나의 지질학적 지대로 규정짓는 요소가 된다.

3장 「기후」에서는 중동이 단일한 기후권이 아님을 밝히며, 기압, 강수량, 온도, 습도 등 다양한 기후 조건의 차이에 주목한다. 특히, 북부 산악지대에서 남부 사막지대로 갈수록 기온과 건조 지수가 상승하며, 지중해·홍해·걸프만 등 해양의 영향과 대륙성 기단의 충돌로 인해 다양한 기후 체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리비아, 이집트, 아라비아반도 내륙 등지에서 발생하는 열풍과 모래폭풍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때때로 식량 생산과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열대성과 해양성 기단이 충돌하면서 형성된 저기압대에서 비롯되는 이집트의 캄신, 리비아의 기블리, 레반트 지역의 실루크, 이란의 시뮴 같은 지역 고유의 바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강조한다.

4장 「토양과 식물」에서는 중동의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생명이 적응해

왔음을 드러낸다. 토양 분포와 생물군계의 구조를 초원, 사막, 산지, 하천 유역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기후대와 고도 차이에 따라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자연지리 부분을 마무리하는 5장 「두 핵심 자원」은 중동의 물과 석유 자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물은 희소성 때문에, 석유는 세계적인 수요와 전략적 가치로 인해 각각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된다. 지하 대수층, 와디 지형, 몬순대의 영향 등 복잡한 자연환경 속에서 물은 인간 생존의 필수 자원으로 기능해 왔다. 과거 중동 역사에서 부족 간에 우물과 같은 수자원을 두고 전쟁과 갈등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물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생존 자원이었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석유는 중동을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로 부상시킨 결정적 자원이자, 중동 지정학의 전환을 이끈 핵심 동력이다. 석유의 전략적 가치는 외부 열강의 개입을 촉진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해 왔다. 비록 자연 지리를 다룬 부분은 전반적으로 서술이 건조하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후, 토양, 생물군계, 물과 석유 자원 등의 요소가 지정학의 핵심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장 「역사지리학」은 중동의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적 전개를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조망한다. 저자는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 문명과 기원전 3100년경 이집트 문명을 중동의 가장 오래된 문명권 중 하나로 소개하며, 이 두 문명 사이에 위치한 시리아가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상업과 교류의 중심지로 기능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시리아는 수메르와 이집트가 발전시킨 물질적·문화적 성과를 연결하고 공유하면서 스스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기원전 약 500년경 페르시아 제국과 시리아의 존재감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지도(그림 6.1)는 고대 제국들의 중동 내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장은 단순한 연대기적 역사 서술을 넘어서 중동 고대 문명이 어떤 지리적 조건과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하고 확장되었는지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앤더슨은 중동의 역사를 고전 시대, 아랍 시대, 십자군 시대, 오스만 제국 시대, 그리고 현대 시대로 구분하며 각 시기의 주요한 역사적 흐름을 기술한다. 고전 시대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페르시아 정복과 로마 제국의 지배 등 7세기 이슬람의 출현 이전까지를 주로 다룬다. 이어지는 아랍 시대

는 예언자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 공동체의 확장과 함께 아랍인들이 중동을 지배한 시기로 정의되며, 정통 칼리파 시대, 우마이야조의 팽창, 그리고 압바스조로 이어지는 흐름을 담아내고 있다. 이어서 십자군과 오스만 제국기를 넘어서 현대 시대는 19세기 중엽부터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20세기 말까지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각 시기별로 핵심적인 역사 사건을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어 전체적인 역사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압바스조를 아랍 시대로 일괄적으로 묶은 점은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 우마이야조가 아랍인 우월주의를 표방해 제국을 운영한 반면, 압바스조는 페르시아 출신을 대거 중용하고, 불교를 신봉한 바르마키 가문과 같은 비아랍계 인물들을 통치 엘리트로 적극 등용했다. 비아랍 세력이 권력의 중심에 진입하면서 제국은 코스모폴리탄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특히, 압바스 혁명의 주도 세력이 쿠라산 지역의 비아랍 무슬림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아랍 시대로 분류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보다 정교한 시대 구분과 용어 선택이 있었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기술이 되었을 것이다.

십자군 시대를 다룬 서술에서 특히 인상적인 대목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십자군의 활동이 주로 해안 지역에 제한되었고, 내륙의 핵심 도시는 여전히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1099년 예루살렘을 점령해 예루살렘 왕국을 세운 이후에도, 십자군 세력은 내륙 깊숙이 진출하지 못했으며, 알레포나 다마스쿠스 등 주요 도시는 계속해서 무슬림의 통제하에 있었다. 물론 길리기아의 아르메니아 왕국이나 예루살렘 왕국처럼 예외적인 사례도 존재하지만, 대체로 십자군 공국들은 해안가에서 산지 전면까지의 좁은 지대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지형과 공간이 정치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스만 제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1498년 포르투갈의 희망봉 항로 개척, 1869년 수에즈 운하 개통과 같은 중대한 사건들이 중동의 전략적 위상을 변화시켰음을 분석한다. 이어 유럽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중동 근대국가들이 인위적으로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제1차 세계대전과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다룬다. 나아가 유럽 열강 등의 지정학적 개입이 미친 영향력에 주목하면서 중동 국가들

이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독립해 현대 국가로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하지만, 중동의 역사적 흐름은 외부 세력의 영향뿐만 아니라 내부의 자율성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일례로, 중세 중동은 유럽 문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지식 창출의 근원지이자 문명 전파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중동의 역사지리학을 이해할 때 외부적 변수와 함께 내부의 자율성도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역사지리학 논의 이후, 인문사회지리의 영역으로 넘어가 사람, 인구, 사회, 그리고 개별 중동 국가들의 특성을 조명한다. 7장 「사람과 인구」에서는 중동의 인종, 언어, 종교, 인구 변동 등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한다. 특히, 고대 인류의 이동 경로와 이란 엘부르즈 산맥의 초원을 연결시킨다. 사막, 산악, 고원 등 중동의 다양한 지형적 장벽은 일부 집단의 고립과 자치 공동체 형성을 촉진했고, 그 결과 드루즈, 알라위, 마론파 등 여러 종파 공동체들이 형성되어 왔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대목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알 올라 지역의 기암절벽 속 고대 주거지나 오만 자발 아크다르 산지에 터잡고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보며 느꼈던 경이로움이 떠올랐다. 중동은 단일한 풍경이 아니라 다양한 자연환경 위에 다채로운 공동체의 삶이 펼쳐지는 공간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 장에서는 중동의 불균형한 인구 분포 문제도 다룬다. 나일강 유역이나 소아시아 일부 지역처럼 과밀로 인해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저지대나 리비아 고지대 등은 인구 밀도가 현저히 낮은 채 개발에서 소외되기 일쑤다. 저자는 이러한 공간적 불균형 속에서 중동의 여러 집단 간 인구 분포 및 인구 밀도의 불균형, 생활 수준의 격차 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난민 문제 등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함께 제시하면서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 수익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시행되더라도 인구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8장 「사회」에서는 중동 사회의 전통적 구조와 현대적 변화를 규명한다. 저자는 중동 사회를 유목민, 정착 농경민, 도시 거주민이라는 세 계층으로 구분하며, 이들이 각기 다른 삶의 방식과 사회 조직을 지니고 상호작용해 왔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삼분 구조는 오랫동안 긴장 및 상호 의존 속에서 유지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석유 경제의 부상으로 균형이 흔들리게 되었다. 또한,

물 부족이라는 환경적 제약은 사람들이 널리 흩어져 정착하지 않고,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제한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게 만든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저자는 이처럼 생태적 조건이 중동 사회의 공간 구조와 정주 양식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도시화의 배경을 해석하는 장면이다. 중동은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이 발생한 곳으로 한때 바그다드, 카이로, 다마스쿠스와 같은 대도시들은 유럽의 어느 도시보다 앞선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다. 앤더슨은 이러한 중동의 도시화가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촉진되었다고 설명한다. 첫째, 상업의 발달로 인한 도시의 성장, 둘째, 부족하거나 염도가 높은 수자원 탓에 특정 지역에 인구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제약, 셋째, 종교적 변수의 작용이다. 도시민들은 외부 사상에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도시에서 새로운 종교 교리가 상대적으로 빨리 확산된 반면, 촌락 지역은 보수적이어서 교리 전파가 더뎠다. 도시화가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닌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결과라는 설명은 중동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도시화의 배경과 함께 전통적 중동 도시의 공간 구조에 관한 분석도 흥미롭다. 중동의 도시는 보통 상업·공공 구역과 주거·사적 구역으로 구분된다. 이 중 상업 구역인 바자르는 개방형 또는 폐쇄형 구조로, 좁은 골목 안에 공방, 창고, 상점, 가판대 등이 밀집된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시장에는 종교 중심지인 모스크와 마드라사(이슬람 종교 학교)가 함께 자리하고, 일부 도시에는 성채나 요새 주변에 중앙 시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세부적 묘사에 중동 도시에서 체험했던 상업 구역과 성채의 형상이 떠올랐고,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9장 「경제」에서는 중동 경제의 전반적 특성을 탐구한다.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이 석유 산업과 외국 원조를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이 과정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정치권력 구조와 경제 전략이 국가마다 다르고, 경제 발전의 양상과 속도 또한 각기 상이하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석유나 천연가스 산업뿐만 아니라 농경과 목축업 등 다양한 분야를 함께 조명하며, 유목 기반의 방목이 점차 제한 구역 내 정주형 축산 방식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중요한 변화로 강조한다.

10장 「중동의 국가들」은 국가를 분석단위로 삼아, 기존의 지역 중심적 접근을

넘어 중동 각국의 고유한 공간적 특성과 구조적 차이를 살펴본다. 각 국가 설명마다 세부 지도가 함께 제시되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저자는 중동 국가들이 지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실체임을 강조하며, 지형, 자원, 정치·사회 구조 등을 통해 국가 단위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 11장 「지정학」에서는 중동 각국의 고유한 지리·정치적 특성과 함께, 국경을 넘어 얹혀 있는 초국가적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안보, 경제, 사회 문제들은 단일 국가를 넘어 상호 연결된 이슈로 규정되고, 국제 경계와 국경 분쟁, 대량파괴무기(WMD)와 재래식 무기, 이주와 난민, 마약 밀매, 석유 자원의 지속 가능성, 수자원과 식량 안보, 테러리즘, 범아랍주의 및 이슬람주의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이 장은 중동을 둘러싼 초국가적 이슈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중동 지정학의 핵심 이슈를 다양한 측면에서 백과사전식으로 풀어낸 종합 안내서라 할 수 있다. 자연환경, 도시구조, 기후, 생태, 역사 등의 이슈를 아우르며 중동의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중동의 지리와 지정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비록 21세기 이후의 중동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동안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토양과 식물, 동물 생태계, 촌락과 경작지, 도시와 인구 변동 등 다양한 주제를 조명함으로써 중동의 복합적인 면모를 생생히 보여준다. 이 책은 중동의 자연지리, 역사지리, 인문사회지리를 아우르는 다양한 영역을 지정학적 시각에서 조망함으로써, 중동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